

.
. .
. .

사회주의 핵심을 학습하자
노동자정치학교 강의교재

.
. .
. .
. .
. .
. .

| 제3강 |

국 가 론

.
. .
. .
. .
. .
. .
. .
. .
. .
. .

【 강 사 】

김민걸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전 대표. 전 전노련 중구지역장으로 롯데백화점 앞 노점철거저지 투쟁을 하였고, 동대문운동장 노점이전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지금도 동묘 근처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 강의 목표 】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우리가 대면하는 공권력, 경찰, 감옥, 사법제도 등일 수도 있고, 국가는 전염병이 돌 때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일 수도 있고, 재해가 났을 때 구호소나 소방관일 수도 있다. 우리는 국가의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이지만 그런 서비스의 댓가로 군대에도 가고, 세금도 낸다. 만약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가 여기에 머문다면 국가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 거래가 공정한 것인가, 아닌가로 머물 것이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과의 문제는 그 정도의 거래관계를 넘어선다.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심지어 박탈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개인과 국가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내의 계층, 지역, 직업 등등이 국가와 대면한다.

어쨌건 우리는 살면서 좋은 국가라는 생각, 나라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시시때때로 한다. 잘못된 사법부의 결정, 국가의 수수방관 속에 절대빈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난다. 그런데 도처에서 우리는 법률과 정부를 존중하라는 다그침을 받는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동원되고, 나쁜 정부라도 나라를 뺏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말도 한다.

문제는 국가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국가의 폭력(공권력)이라든지, 세금 같은 것을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가는 태초부터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인류문명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류역사에서 국가가 없던 시절이 국가의 존속기간보다 훨씬 길다. 국가는 인류에게 숙명적으로 다가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영구불변의 것은 아니다. 국가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국가라는 괴물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할 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1. 국가의 기원과 본질

가. 국가의 기원

인류문명이 자신의 제도에 대해 과학적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행히도 자신들이 제도를 만든 지 한참 후였다. 그래서 제도의 본질이나 기원을 밝히는 데, 경험적이기보다는 유추나 억측으로 시작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소위 일련의 자유주의자들 홉스, 로크, 루소 그리고 아담스미스, 벤담, 밀과 같은 사람들은 국가의 기원을 논할 때 부르주아 개인들의 상호합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국가는 자각된 개인의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사회의 생산력 발달이 초래하는 인류문명의 진화과정이자 투쟁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인류역사에서 문명의 발생과 국가의 발생은 거의 병행한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미개상태에 놓여 있는 사회가 문명시대와 동시에 존재하는 행운 때문에 인류가 거칠 수밖에 없었던 단계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길, 인류학의 방법이 열렸다. 엥겔스가 살던 시절의 모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인류학자들의 노고덕분에 국가가 없던 시대의 인류의 모습과 국가형성과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1) 생산력의 발달과 분업의 발생

인류최초로 등장한 사회형태는 씨족사회다. 아이는 어머니가 낳고 기른다. 때문에 적어도 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인류초기에는 당연히도 모계를 기본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가 먼저 출현했다. 이러한 모계사회를 기본으로 하는 인류초기의 공동체를 씨족공동체라 부른다. 생산력이 낮았던 이시기에 채집과 사냥이 유력한 생존방법이었고 씨족공동체에서는 여성이 주도하는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이 공동체의 생존에 절대적인 구실을 하게 된다. 채집과 사냥에 필요한 도구, 혹은 토지들, 큰 사냥감

4 | 사회주의를 학습하자!

같은 우연히 생긴 잉여들은 모두 씨족 공동체의 것으로 여겨진다. 씨족공동체는 씨족간의 근친 동맹 등으로 발전하여 좀 더 큰 집단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내부에서는 사냥이나, 생존, 그리고 다른 집단 간의 전쟁 등을 계기로 군사 조직과 같은 초보적인 지휘체계가 발생하는데, 혹은 이러한 사회를 군단사회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는 채집에서 농경으로 수렵에서 목축으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정기적으로 잉여가 발생하면서 극적인 변화에 직면한다.

농경과 목축이 발생하면서 농경과 목축의 주인공이 남성이 되자, 가족 내에서 남녀 간의 분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여성이 가사노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은 채집, 수렵경제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목축과 농경이 발생하자, 잉여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노동이 되어버린 가사노동과 함께 여성의 지위는 하락했다. 생산력 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체의 잉여가 남자의 것이 되면서, 여성은 남성의 아내로서 잉여의 소비에 참가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자 여성의 지위는 하락한다.

이 사회적 잉여를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도구의 발달과 더불어 초보적 형태나마 경영능력을 요구한다. 효율적인 분업과 노동의 고취 등을 지휘할 유력자가 필연적으로 등장한다. 가족단위에서 씨족단위로 보다 규모가 큰 협업, 분업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이는 더욱 촉진된다. 게다가 외부의 침입 등의 상황 때문에 씨족회의, 부족회의의 수장이 통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위기상황이 사라지면 해체되곤 했다.

(2) 계급의 발생

생산력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유력자가 영구히 그 지위를 갖지 않게 하려는 초기의 노력은 유력자의 야심을 억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노고를 칭찬하기보다는 깎아내리는 행위, 혹은 그의 노고가 각인되어 있는 산물을 지상에서 일시적으로 소비해버려 근거를 없애버리는 행위 등을 통해 그리고 유력자의 지위를 호선하거나 순환하게 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대인제도¹⁾나 포틀래치²⁾같은 제도가 바로 그런 제도였다.

1) 멜라네시아의 대인제도- 권력, 권위, 지위는 없으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 안



대인제도를 유지하는 부족사회에서 대인이 돼지를 부족민에게 분배하고 있다(SBS 다큐 “최후의 제국”의 한 장면)

공동체의 부를 생산하는데 탁월하거나, 전장에서 놀라운 용맹을 발휘한 사람들이 권위나, 권력, 그리고 지위가 없이 자비심과 겸손을 발휘하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인구가 늘고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엘리트 행세를 하며 영구적인 지도자로 권위를 갖는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잉여를 사적으로 차지하면서 지배자로 떠오르게 된다. 막대한 잉여는 이제 기본 생산영역에서 해방된 새로운 분업을 낳게 했다. 즉 농업과 목축업에서 수공업의 발생이 그것이다. 수공업자의 생계는 초기에는 공동체의 공동기금을 통해 확보되고 자급자족이 주목적이지만, 대외 교역이 늘어나면서, 수공업은 팔기위한 생산, 상품생산을 만들어낸다. 이것과 함께 사회조직에서 생산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기생계층들이 등장한다. 승려나 상인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특수한 계층으로서 상설화된 지위를 획득한다.

정을 유지하고 부락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멜라네시아 각 사회에서 대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일정치 않음, 자격은 부, 용맹, 웅변능력, 자비심 등이 된다)

- 2) 포틀래치라는 말은 본디 치누크족 말로 '소비한다'라는 뜻이다. 축하연에서는 많은 음식물과 함께 사냥해서 잡은 호랑이 모피, 모포, 동판(銅板), 때로는 통나무배 등을 손님들의 지위에 따라 선물로 준다. 포틀래치에 쓸 재물을 준비하는 데는 축하연의 종류에 따라 가족·친척·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였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받은 선물액에 일정한 이자를 붙인 만큼의 답례 축하연을 베풀지 않으면 체면을 잃고 때로는 노예 신분이 되기도 했다. 특히 친척이나 마을의 우두머리 자리는 그의 부친이 베푼 축하연의 규모·횟수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포틀래치는 사회집단을 단위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하는 행사로서, 서로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의욕 때문에 행사 개최의 주인공은 귀중한 재물인 통나무배나 그에게 속한 토켄상을 새긴 동판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파괴하거나, 소유하는 노예를 죽여 자신을 과시하기도 했다.

6 | 사회주의를 학습하자!

대외적으로 씨족과 씨족의 경계가 충돌하면서, 씨족간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전쟁행위는 단순히 경계의 확대, 경작지, 목초지의 확대를 넘어서 살아 있는 전리품, 포로를 획득하게 해준다. 인간의 생산력이 밤낮으로 일해서 겨우 자기생존에 필요한 것들만 생산할 수 있다면 노예는 애초에 나타날 수가 없다. 포로들은 생산력이 낮은 단계에서는 씨족의 식량만 축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인간의 노동이 인간을 유지하는 것 이상을 만들어 내는 단계에 오자 전쟁포로는 노동을 착취하는 대상이 된다. 노예의 등장은 생산력의 발전과 아울러, 계급분화를 급속히 촉진시킨다.

(3) 전문적인 폭력집단의 등장, 본격적인 억압기구의 등장

씨족사회의 규범들, 평등한 성원들 간에 가능했던 원시적 민주주의는 이제 계급의 발생으로 더 이상 지탱되기 어려운 지경이 된다. 사회는 더 이상 분열된 계급간의 화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공권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사적소유를 지키기 위한 사회규범이 요구되고 이러한 규범을 지키게 하는 강제력을 위해 경찰이 등장한다. 그리고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들 즉 판관의 역할이 등장하고, 이를 집행할 감옥이 등장한다.

나. 국가의 본질

국가의 발생은 계급이 발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계급이 없던 사회에서는 국가도 없었다.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생산계급을 지속적으로, 세습적으로 착취하는 수단은 폭력과 억압이다. 따라서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를 억압하기 위한 조직된 폭력이다.

자유민의 8배에 달하는 노예를 거느리고 있던 스파르타는 전사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무고한 노예를 급습해서 살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공포가 억압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고대중국의 5가지 형벌(경, 의, 월, 궁, 사형)



국가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를 억압하기 위한 조직된 폭력이다

즉 얼굴에 문신하기, 코를 베는 것, 발을 자르는 것, 생식기를 자르는 것, 그리고 목숨을 빼앗는 형은 국가가 있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잔혹행위였다. 국가의 질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지배계급의 억압은 국가폭력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국가는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폭력이다. 국가형태가 공화정, 군주제, 봉건제 등 다양하게 존재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2. 부르주아 국가의 특징

가. 부르주아 사회는 계급사회이다.

부르주아 국가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기초로 하는 사회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생산수단(자본)과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과의 결합이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인 부르주아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계급간의 분열위에 부르주아 국가는 서 있다. 부르주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잉여노동을 착취하고, 그 잉여노동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동원한다. 부르주아 소유권을 지키는 것은 부르주아 국가의 첫 번째 존재이유다. 계급국가인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무력화시킬 각종기구와 아울러 자본의 축적을 보장할 기구들도 아울러 발전시켜왔다.

나. 부르주아 국가의 전도 (뒤집어 보이기)

자본주의 사회는 신분제를 철폐시키며 등장한다. 따라서 신분적 억압에서 해방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고, 신분적 차별과 구별되는 평등이 강조된다. 그리고 선진 복지국가에 이르러서는 사회연대방식의 복지체제가 구상되는 등, 연대, 혹은 박애의 정신이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르주아국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뒤집어 보이게 한다. 그러나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 듯해도 계급사회에서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일 뿐이다.

(1) 부르주아 국가와 개인의 자유

부르주아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위한 방과제임을 자부한다. 헌법에도 온통 거주이전부터 양심의 자유까지 자유일색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부터 자유는 사적이익을 취하는 개인들의 자유를 의미했다. 사적이익은 시

장에서 실현되므로 시장(주체)의 자유가 강조되고, 시민사회(부르주아 사회)에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자유주의가 부르주아 정치이론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

부르주아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는 피억압계급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주어진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일찍이 발달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에는 개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유랑자들은 이마에 낙인을 찍히거나 교수형에 처해졌다. 나중에 개선되었다는 것이 구빈원에 강제 수용하는 것이었다. 부르주아들의 자유로운 시장활동을 위해 빈민들은 감금되어야 했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해서 부르주아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전진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불행하다면 부자가 더 불행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좀 더 자유로워 졌다면 부르주아가 덜 자유로울 리가 없다. 결론적으로 부르주아 국가에서 부르주아들만이 자유를 최대한 향유한다. 사업하는 건 감방 담벼락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부르주아들의 푸념에도 불구하고 남한 최고의 재벌 이견회는 그 위를 뛰어다닌다.

(2) 공정한 국가라는 신화

서구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등장할 때, 나온 개념의 하나가 시민사회와 국가다. 절대왕조시대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형성과 국가는 모순관계로 설명되었다. 절대주의 시대에는 시민사회는 민주적이고, 국가는 억압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절대왕조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사회가 성립하자 즉 부르주아의 지배가 확립되자, 이제 시민사회와 국가는 달리 설명된다. 시민사회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 즉 자본주의 체제를 의미하고 국가는 시민사회와 대립적인 개념, 보편적이고 공적인 개념으로 치장된다.

부르주아들은 시민사회를 국가와 대립시킴으로서 민중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환상을 품게 한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를 보편적인 존재, 즉 시민사회를 이루는 각 계급의 심판관이자, 조정자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맑스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시민사회와 국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는 것을 폭로한다. 즉 국가는 시민사회(자본주의사회)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구에 불과함을 폭로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지배의 도구인 것이다. 그래서 맑스는 부르주아 국가의 본질이 부르주아 독재임을 폭로하였다. 부르주아 국가는 입헌군주제부터 공화제까지 다양한 정치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부르주아의 계급지배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의 독재다.

다.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폭력성

신분제도가 존재하던 시대에는 이른바 경제외적 강제(신분적 억압)가 억압의 주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이는 권력자의 전횡으로 이어진다. 봉건시대에는 영주의 초혼권이 주장되기도 하고, 권력자의 임의대로 모든 것이 결판난다. 이러한 신분사회를 철폐하고 등장한 부르주아국가는 일상적인 폭력성에서 신분제보다 나아진 것 같지만, 체제위기에서 발휘하는 폭력성은 전시대를 능가한다.



최초의 노동자국가를 수립했던 파리의 코뮤니스트들은 5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러시아혁명이후, 백군과의 전투에서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다. 1차대전 직후 독일에서 노동자혁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남한의 반공국가는 좌익으로 분류된 30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도연맹에 가입시키고 대량학살의 명부로 활용하였다. 지금도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부르주아들의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무장한 자들이 브라질에서는 아이들을 사냥하고 필리핀에서는 농민을 목매고 있다. 발달된 생산력은 대량학살의 길을 열어놓았고, 부르주아들은 대량학살의 수단을 자신의 권력을 수호하는데 마음껏 사용하고 있다.

3. 새로운 유형의 국가로서 노동자 국가

가. 자본주의 국가를 반대했던 무정부주의자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이 점점 심화되고, 부르주아 사회를 수호하려는 국가의 존재가 뚜렷이 부각되었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국가 그 자체에 대한 혐오다. 부르주아 국가가 노동자계급의 억압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점점 폭로될수록 자본주의 나아가 국가일반에 반대하는 주장이 등장한다. 무정부주의자라고 불리는 이들은 부르주아국가의 억압을 주목하고, 사적소유가 억압의 이유임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개인의 자유로운 연대를 방해하는 일체의 국가적 억압을 반대하고, 사적소유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혁명에 대한 소박한 생각으로 노동자계급이 움켜쥐어야 할 정치적 수단을 사실상 해체시킨다. 이들은 국가 일반을 반대하면서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가를 수립하여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해체하고, 부르주아 소유를 철폐시켜야하는 과제, 상품생산이 아닌, 필요에 의한 생산을 조직하는 과제, 그리고 패배한 부르주아의 반혁명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무장해야하는 과제를 비껴나간다. 따라서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세력이 아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모험주의자, 무책임한 선동가처럼 굴지만 역설적으로 결정적 시기에는 가장 무능한 집단이 된다.

나. 노동자 국가의 수립과 국가의 소멸

맑스주의는 역사상 최초로 등장했던 노동자 국가, 파리코뮌의 경험으로부터 노동자국가사상을 발전시켜 나갔다.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이 국가를 즉각 철폐하는 것이었다면, 맑스주의는 노동자계급이 노동자국가를 건설하고, 다수의 지배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구별된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사회적 권력을 장악하고, 이 권력의 힘으로 부르주아지의 손안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회적 생산 수단을 사회 전체의 소유로 만든다. 이러한 행위로써 프롤레타리아트는 생산 수단을 자본이라는 종래의 속성에서 해방하며 그것의 사회적 본질이 완전히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제부터는 예정된 계획에 의한 사회적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생산의 발전으로 각종 사회 계급이 더 이상 계속 존재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착오가 된다. 사회적 생산의 무정부성이 사라짐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권위도 시들어 버린다. 드디어 자기 자신의 사회적 존재의 주인이 된 인간은 그 결과로 자연의 주인,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 즉 자유롭게 된다.” (엔겔스, 『공상에서 과학으로 사회주의의 발전』)

노동자국가는 부르주아 국가를 타도하고,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하면서 나타나는 국가형태다. 노동자국가는 반동계급의 도전을 물리치고, 억압되었고, 왜곡되었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의 정치적 권위와 함께 계급을 소멸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다. 프랑스 파리코뮌과 러시아 소비에트의 역사적 경험

(1) 파리코뮌의 역사적 경험

1871년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의 황제가 포로로 잡히고, 부르주아가 수도를 프리시아에게 넘기려 할 때, 파리의 노동자들이 봉기하여 노동자국가를 수립한다. 프랑스에서는 일련의 부르주아 혁명, 즉 1789년, 1830년, 1848년에 의해 부르주아 정치체제가 안정됨과 동시에 프랑스의 자본주의화가 진전됨에 따라 등장한 프랑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발전이 세계최초의 노동자국가를 수립하게 한다.

파리의 인민들은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단행한다. 우선 기존 상비군을 해체하고 징병제를 없앤 다음, 스스로 국민군으로 무장을 한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 즉 새로운 국가 기구를 구성한다. 파리의 인민들은 지역 공동체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90인의 코뮌의원 회의가 입법과 행정을 통합한다. 그리고 대표자들에게 노동자 평균임

금을 지급하고 소환제를 도입한다. 코뮌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조치를 단행한다. 즉 집세의 미지불분의 일시연기, 종교·재산의 국유화, 자본가들이 버리고 간 공장에 대한 노동조합의 관리, 부채의 지불유예와 이자 폐기, 노동자의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체제의 변화를 선도할 일련의 조치를 단행한다. 그러나 베르사유로 도망간 부르주아 임시정부를 신속히 제압하지 못함으로써 프랑스 부르주아들과 프로이센 반동세력의 역공을 받아 72일 만에 무너졌다. 그럼에도 파리코뮌의 거대한 역사적 의의는 결코 퇴색될 수 없다.

파리코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위선을 깨고, 실질적인 민주적 조치들을 제시했고, 노동자가 자신의 고통을 완화하고, 나아가 인간적인 삶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집행했다. 파리코뮌은 역사상 최초로 선출된 권력이 자립화하여 군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한 최초의 권력이다. 즉 파리코뮌의 대표자는 언제나 소환이 가능했고, 일체의 특권을 박탈함으로써 선출된 대중으로부터 소외되거나, 혹은 선출된 대중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했다. 왕정에 대해 불멘소리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시작된 부르주아 의회주의의 거추장스러움을 걷어버리고, 코뮌은 입법과 행정을 통일시켜 선출직 공직과 임명직 공직의 경계를 무너트려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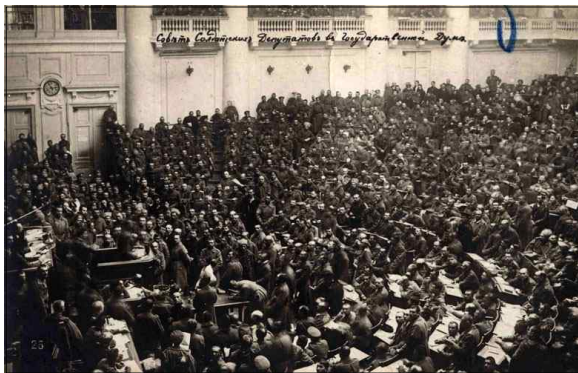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도 이른바 강제위임, 즉 선거인들이 후보를 뽑아서 당사자로 하여금 할 건지 말건지를 결정하게끔 하는 방식도 동원되었다. 인민들이 코뮌의회에 감사를 표하려 하자 독재자의 출현을 경고하며 이를 말린 코뮌은 무계급사회의 대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들은 헌신적이었지만 차지하려 들지 않았고,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나,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자비심과 겸손을 갖춘 코뮌나르들이 사방에서 출몰했다.

그리고 이러한 코뮌나르들은 지역의 자발적인 대중조직이었던 클럽을 배경으로 코뮌에 의견을 제출하고, 혹은 코뮌의 집행사항을 실천하는 역할을 다했다. 파리코뮌은 의식화된 대중의 자발성과 무계급사회를 향한 사심 없는 인간형의 출몰이 목격되었던 인류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2) 러시아소비에트의 역사적 경험

1917년 2월 1차 대전, 러시아에서만 하루에 평균 7,500명이 전선에서 죽어 나가는 반면, 자본가들은 무기를 팔아 떼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한겨울에도 네덜

란드에서 장미를 수입하여 흑해를 돌아, 냉장열차로 공수시켜 자신의 식탁을 장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러시아 여성노동자들의 행진과 뒤이은 노동자, 병사들의 봉기로 끝장났다.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 병사들은 기차길에서 헤매고 있던 러시아 황제를 몰아내고, 소비에트라는 자발적인 대중적 권력기관을 창출하여 러시아 혁명을 이루었다. 전쟁기간이었기 때문에 구 국가기구 중에 군대가 가장 강력했고, 그만큼 가장 극적으로 무너졌다. 병사들은 탈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못된 장교들을 교수형시켰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구체제의 국가기구들이 와해되는 동안, 혁명대중에게 유일하게 권위를 인



1917년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대회 전경

“러시아의 노동자, 농민, 병사들은 기차길에서 헤매고 있던 러시아 황제를 몰아내고, 소비에트라는 자발적인 대중적 권력기관을 창출하여 러시아 혁명을 이루었다.”

정받았던 소비에트가 전 러시아를 사실상 통치했다. 대중적 권력기관이었던 소비에트는 앞서 등장한 파리코뮌에 비해 전국적 규모에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대중의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작동되었다. 대회가 소집될 때마다 대표자들을 새로 선출했고, 대회에서 선출한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대회와 대회 사이에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따라서 소비에트 대의원은 자주 선출되었고, 그만큼 대중들의 정치적 성향분포를 현실에 가장 가까이 반영한 유연성 있는 기구로 평가받는다.

파리코뮌의 후예로서 러시아 노동자들도 거의 같은 조치를 단행하였고, 즉 상비군의 폐지, 인민의 군대로의 대체, 입법과 행정의 통일, 소환제의 도입 등, 이러한 조치는 대중들의 자치기구, 즉 각 공장의 공장위원회와 소비에트, 농촌 소비에트, 지역소비에트 등에 의해 고무되고, 밀어붙여지고, 집행되었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러시아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적 소유관계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소유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주아 계급이 취약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러시아인민들의 자치역량이 높았던 데 그 이유가 있다.

러시아 소비에트는 참호에서 구겨져서 자면서, 장교들에게 엉덩이를 수없이 채였던 일반병사와 공장에서 매일 기름범벅이 되었던 노동자를 역사의 전면으

로 끌어냈다. 그들은 세계정세를 이해해야 했으며, 전선의 상황, 지역의 식량수급상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너끈하게 이런 일들을 해냈다. 인구 1억이 넘는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대국을 담배에 찌들고, 비듬이 우수수 떨어지는 노동자, 가사노동에 허리가 휘고, 길고 긴 식량배급줄 때문에 다리가 통통 부어버린 노동자가 전쟁의 한 복판에서 구해내 전 세계 피억압 민중의 희망으로 만들었다.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만큼 선진자본주의국가였던 독일 혁명이 필수적임을 러시아 혁명의 주역들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독일혁명은 사민주의자들의 배신에 의해 좌절되었고, 러시아는 극심한 내전과 간섭전쟁을 이겨내면서, 생존했지만 그 대가는 컸다. 소비에트 국가는 격심한 내전기를 거치면서 노동자 중핵이 전사하고, 노동자정당의 중핵들도 약화된 가운데 관료제의 부상을 막지 못해 노동자국가로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내부모순이 점점 심화되며 혁명 후 71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다.

라. 노동자국가 수립의 전망

21세기 자본주의가 더 이상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경제위기를 반복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계급에게는 노동자국가 수립이야말로 의무이고 현실이다.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실업과 모욕, 그리고 빈곤에 시달리는 전 세계 근로인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위는 남한 노동자계급이다. 남한 노동자계급은 파리코뮌과 러시아소비에트보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할 주인공들이다. 그래서 21세기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전세계 근로인민과 함께 높은 생산력에 기초하고, 높은 노동자계급의 교양수준에 입각한 새로운 노동자국가를 수립할 수 있다.

첫째,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도시와 농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더욱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고도화된 기계문명은 기계를 자본주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노동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풍부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한 이

러한 생산력의 발달은 필요한 육체노동을 전 성원이 골고루 부담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구가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체계의 발달은 도시와 농촌의 간극을 무너트리고, 인간이 자연의 정상적인 에너지 순환에서 벗어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의 대도시 거주를 무너트리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주거형태와 정주형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는 건설자본의 이윤추구에서 벗어난 사회운영원리를 창출하여 도시와 농촌의 모순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문화적 향상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대중의 직접민주주의를 더욱 쉽게 실현하고, 고도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민주적 자치능력에서 세계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록 기업별노조체계에서지만, 총회민주주의와 소환제 등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훈련이 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수준과 세계최고수준의 정보통신 환경에서 인터넷이라는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이 요구하는 최고수준의 민주주의가 역사적 경험은 물론이요, 당대 허접한 지식인들의 상상력을 뛰어 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민주적 자치능력을 가진 노동자의 존재는 러시아 소비에트에서 뼈아프게 경험한 관료주의 국가의 혐오스런 폭력성을 극복하고 국가의 권위를 해체시키는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할 것이다.

셋째, 시련과 좌절을 뚫고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계급의 지도역량이 확보되고 있다.

남한의 노동자계급은 소련의 붕괴와 뒤이은 전 세계적인 청산주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공국가에서 혹독하게 성장하고 훈련된 노동자계급의 중핵을 보유하고 있다. 자본의 전반적 위기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투쟁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남한 노동자계급의 중핵은 노동자계급이 주도하는 노동자국가건설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지도의 우위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토론거리

- ☞ 계급사회는 왜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 ☞ 세월호 참사 이후 “이게 나라냐”라는 푸념을 많이 듣게 된다. 국가의 본질과 관련하여 이런 사고가 지닌 한계는 무엇인가?
- ☞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을 노동자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 마빈 해리스, 『문화의 수수께끼』
 - 엥겔스,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
 - 레닌, 『국가와 혁명』
 - 토미 더글라스, 『마우스랜드』 (동영상)
-